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7일(월) 총 6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재생정책과	담당자	• 재생관리팀장 지민구 ☎440-4456 • 담당자 문영숙 ☎440-4457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도시재생 첫 성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 2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첫 마무리 사업으로 눈길 -**

인천광역시는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이 관내 2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을 시작으로 현재 총 26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것은 동구의 재생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이다.

화수동은 한때 우리나라 3대 어항 중 하나였으나 신흥부두 개척으로 주거지가 노화되고 공·폐가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쇠퇴지역이 됐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환경개선,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했다.

공·폐가 등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빈집 11개 동을 철거하고 행복주택(48세대, 2동)을 조성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했다.

또한, 공영주차장(30면)을 조성해 주변 다세대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했으며, 마을카페 운영, 빌라관리 등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최근 행복주택 내 마을카페에서 시음회를 가진 마을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달라진 마을 모습에 대한 만족감을 공유했으며, 마을 사랑방으로서의 마을카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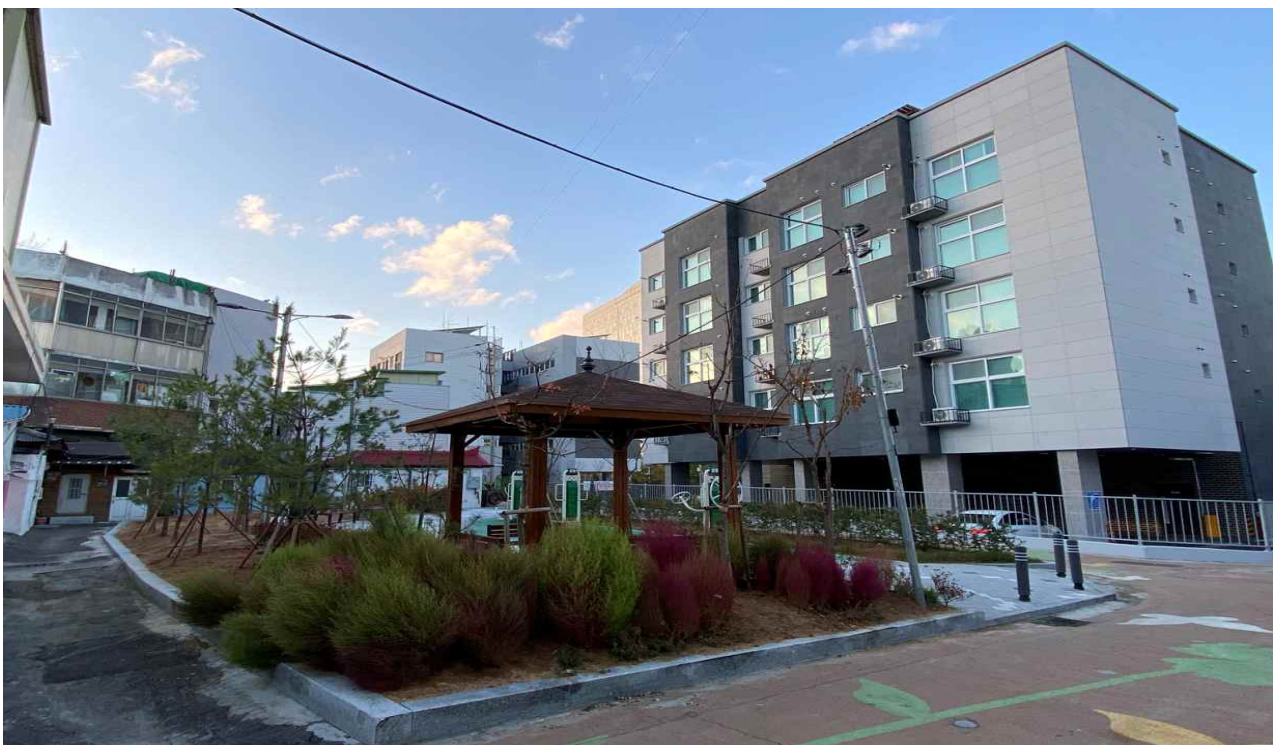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행정,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련사진 1부. 끝.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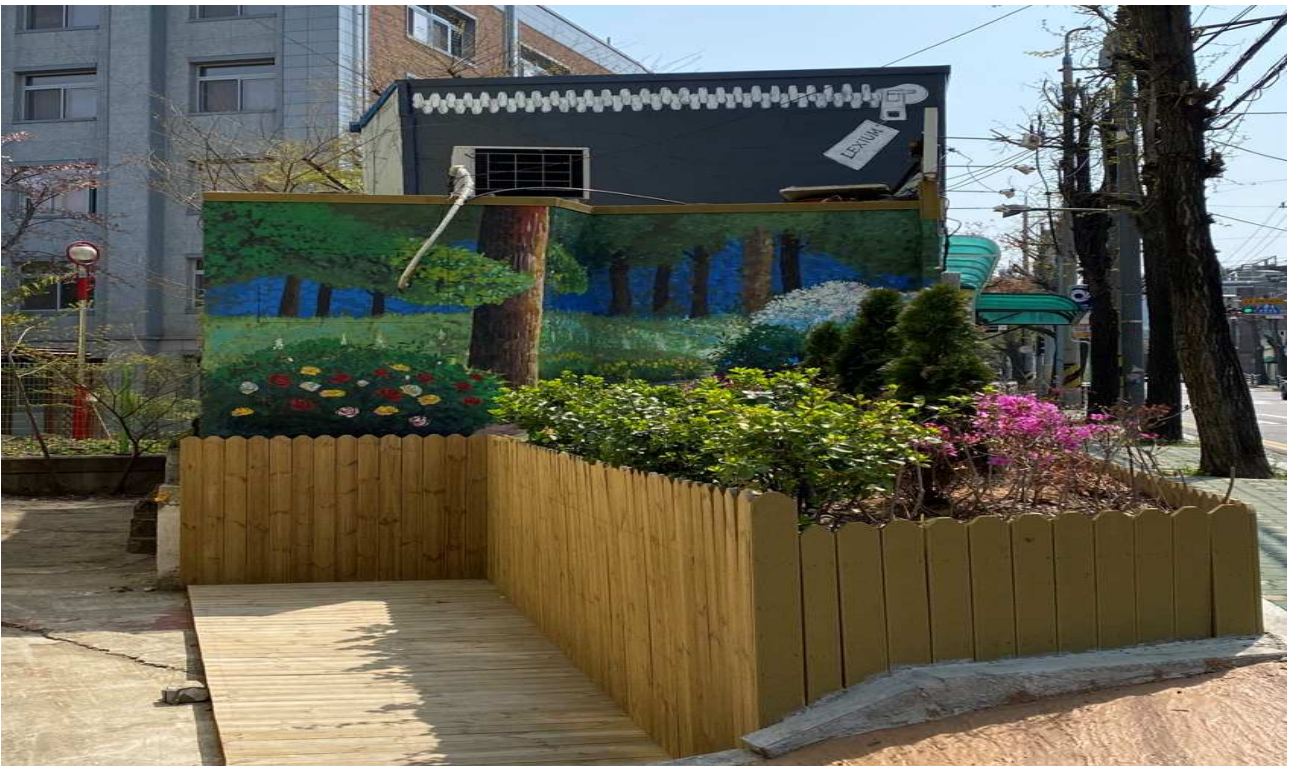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 행복주택





□ 문화정원





## □ 안전문





□ 마을카페

